

광주·전남 산 단풍옷 갈아입지도 않았는데... 벌써 '입동'

전국 유명산 21곳 중 14곳만 절정 기후변화에 단풍 절정기 늦어져 물들기도 전에 잎사귀 떨어지기도

광주·전남의 유명 산들이 단풍 옷을 갈아입지도 전에 입동(7일)이 찾아왔다. 올해 이례적인 늦더위로 단풍 절정기가 지난해보다 늦어질 것(9월 24일자 광주일보 2면)으로 예상됐지만, 일부 산에서는 아예 절정기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

6일 기상청 '유명산 단풍현황'에 따르면 광주·전남 유명산 5곳(무등산, 지리산, 조계산, 월출산, 두륜산) 중 단풍이 절정에 이른 곳은 무등산과 지리산에 불과하다.

단풍은 산 전체로 볼 때 정상부위 아래로 20% 정도 물들었을 때를 '첫 단풍'이라고 하며 80% 이상 물들었을 때를 '절정기'라고 한다.

당초 산림청은 지난 1일 월출산이 단풍 절정기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직 절정기가 먼 것으로 관측했다.

해남 두륜산의 경우 8일이 절정기로 찍혔으나 단풍이 물들기 전에 잎사귀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국적으로 단풍이 가장 유명한 곳으로 알려진 내장산의 경우 지난달 27일 단풍이 절정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6일 현재까지도 조짐을 찾기 어렵다.

광주·전남의 유명산을 포함한 전국 유명산 21곳 중 절정에 이른 산은 지리산, 무등산을 포함해 설악

산, 오대산, 북한산, 치악산, 소백산, 월악산, 속리산, 주왕산, 계룡산, 덕유산, 가야산, 가지산 등 14 곳이다.

단풍이 늦어지는 이유는 이례적인 늦더위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단풍은 하루 최저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면 잎속 엽록소 분해 현상으로 노랗거나 빨갛게 물들기 시작하며, 9월 상순 이후 기온이 높고 낮음에 따라 좌우된다. 일반적으로 기온이 낮을수록 빨라진다.

단풍은 일조량이 좋고 기온이 떨어질수록 엽록소가 파괴돼 더 빠르게 절정에 이르는데, 올 가을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단풍 절정기가 늦어지고 있다. 결국 기온이 서서히 떨어지는 남부지역의 산들에서 단풍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절정기를 맞이하기도 전에 겨울에 접어들어 잎사귀들이 떨어지는 산들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절정기라고 하는 무등산의 경우에도 단풍이 기대만큼 아름답게 물들지 않고 있다.

무등산 국립공원 관계자는 "6일 오전 무등산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은 11월 단풍 절정기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면서 "올해 늦더위 때문에 탐방객들이 무등산의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결국 이상기온 등의 기후변화로 단풍이 드는 시기가 점차 늦어져 가을 산행객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있다.

한편, 산림청과 각종 연구진들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 우리나라 단풍나무류가 단풍이 드는 시점이 매년 평균 0.39일 늦어지고 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 8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尹 "2027년까지 1조원 규모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제 비수도권 창업 기업에 적극 투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2027년까지 1조원 규모의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조성해 비수도권 창업 기업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해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0월 울산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시작으로 취임 이후 열린 모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은 혁신 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벤처와 스타트업은 투자가 중요한데, 자금력과 네트워크를 갖춘 벤처캐피탈은 수도권에 90% 이상이 몰려있고, 비수도권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전체의 20%대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 기업들은 투자받기 위해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가야 하거나 투자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찾아 수도권으로 이전하기도 한다"며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투자 기회를 얻지 못해 지역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현장에 맞는 투자 확대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비교 우위의 강점을 살려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시대"라며 "정부가 도입한 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도시융합특구·문화특구의 4대 특구가 이를 이뤄갈 핵심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과 일자리뿐 아니라 정주 인프라가 패키지로 조성될 때 진정한 지방시대가 실현된다"며 "지자체에서도 현장의 눈높이에서 지방시

대 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역에 방치된 빈집과 폐교의 활용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방치된 빈집과 폐교는 경관을 해치고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하는 만큼 이를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며 "빈집과 폐교를 지역 활력 부활의 공간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빈집 정비 통합지원 TF'가 출범했다"며 "해마다 전국의 빈집 현황을 조사하고 내년부터는 빈집 정비 사업 규모도 2배로 확대해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지자체에서는 시·도지사와 시도지사협의회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일본 등 9개국, 무안국제공항서 편하게 떠나요

동절기 운항노선 18개 확보... 15일까지 권역별 현장 홍보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갈 수 있는 국가가 일본,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라오스,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9개국으로 늘어난다.

전남도는 각국의 유명 관광지를 가는 18개 노선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무안군, 항공사 등과 합동으로 철도역, 버스터미널, 대학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캠페인에 나선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무안국제공항 동절기 운항 노선은 ▲일본 오사카·나리타·나가사키 ▲대만 타이베이 ▲태국 방콕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라오스 비엔티안-무앙프라방 ▲필리핀 마닐라 ▲중국 항저우-장가계-여강 ▲캄보디아 시엠펙 ▲베트남 다낭·다낭-달랏·하노이·푸꾸옥 총 9개국 18개 노선이다.

지난해 동절기보다 3개국 6개 노선이 늘었다.

이번 캠페인에선 2007년 무안국제공항 개항 이후 처음으로 매일 운항되는 일본 나라타, 오사카, 대만 타이베이 정기편 국제노선과 동절기부터 새롭게 운항하는 태국, 말레이시아 등 다변화된 노선을 중점 홍보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15일까지 서부권, 동부권, 광주권 등 권역별로 현장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6일 무안군과 함께 나주역과 목포대학교 등에서 '두근두

근 무안국제공항' 홍보물을 배포하고 운항스케줄, 이용가이드, 동절기 운항 노선 등을 설명했다.

국내 대표 저비용 항공사인 진에어가 이번 동절기 노선부터 매일 운항하고, 급급 좌석 전체를 개별 공급하는 내용도 홍보했다. 그동안 80% 이상 여행사를 통해 좌석을 공급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좌석 전체를 개별적으로 공급하고, 매일 정기편을 운항하는 것은 무안국제공항 개항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전남도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노선의 성공적 운항과 항공기 운항 방식의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운항 노선 다양화를 위해 제주항공이 취항하는 일본 나가사키, 대만 타이베이, 태국 방콕,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노선 등에 대한 홍보와 이용률 제고 지원에도 나선다.

무안국제공항 배후 시장 확대를 위해 전북도청, 전북 14개 시·군, 광주시청 광주 5개 구청에 '무안국제공항 동절기 운항 노선 홍보 및 활성화 협조요청 공문'과 홍보전단을 발송하고 협력도 요청했다.

무안국제공항 10월말 기준 이용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90% 상승했다. 전남도가 올해 목표로 정한 이용객 50만명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강 노벨상 원천은 '공상' ...중흥도서관에 '멍' 때리는 공간 만든다

북구, '공상의 방' 2~3개 조성 공상나무 조형물도 설치 계획

2024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나고 자란 광주시 북구의 중흥도서관에 '멍' 때리는 공간이 만들어진다.

한강 작가의 수상을 기념하고 제2의 노벨문학상을 수상할 수 있는 인재들에게 사색의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다.

광주시 북구는 중흥도서관에 공상의 방을 조성한다고 6일 밝혔다.

북구는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원천은 '공상'이라고 보고, 한강 작가의 고향인 북구 중흥동에 있는 중흥 도서관 1층 프로그램실에서 공상의 방을 조성하기로 했다.

한강 작가 노벨 문학상 수상 당시 부친인 한승원 작가는 "한강이 초등학교 4학년 때 홀로 감람한 방에 앉아있기에 무엇 하나도 몰랐더니 공상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공상의 방은 66㎡(20평) 남짓 크기의 공간에 만들어진다. 이곳에 2~3개의 방으로 나눠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공상 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글로 담은 뒤 공상나무 조형물도 설치한다는 것이 북구의 계획이다.

또 한쪽 벽면에는 영상이 나오는 멀티비전을 설치해 시각적인 부분도 충족할 수 있게 한다.

북구는 오는 12월 20일 공상의 방 개관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과정

- 일시: 2024. 9. 2(월) 오후7시
- 장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산수오거리-무등산방향 투리보석2층)
- 수강료: 풍수+사주 = 20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시: 2024. 8. 26(월) 오후7시
- 장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상: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공개
- 기상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백파 증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공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010-2246-1508

진보건설(주) 공고 제2024-11-01

자본감소로 인한 주권제출공고

본 회사는 2024년 11월 06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자본의 총액 금610,000,000원 중 금300,000,000원정액을 감소하여 금310,000,000원으로 하고 1주의 금액 금10,000원의 30,000주에 대하여 각 출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출자 비율대로 무상소각하여 총발행주식 61,000주를 31,0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으므로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와 주주권을 가진 이는 이 공고게제 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것을 공고함.

2024년 11월 7일
진보건설주식회사 (062-252-0900)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수상길 60-66
대표자 김창열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양이찬성(351228-1XXXXXX)
- 최후주소: 광주 서구 상무비들로40번길 14, 106동 502호(유촌동, 상무비들마을 1주공아파트)

피상속인 양이찬성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4년105호로 신청하여 2024년 10월 31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11월 7일
상속인: 이백진(720320-1XXXXXX)
세종특별자치시 다정중앙로 19, 413동 2601호(다정동, 가은마을4단지)
· 신고기간: 2024. 11. 7. ~ 2025. 1. 17.
· 채권신고처: 상속인 이백진의 주소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